

- 주요 뉴스: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완화에 상당한 자신감 금리인하는 정치와 무관하게 결정
 - 미국 재무부 차관,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하여 보다 강력한 방어 마련할 필요
 - 영란은행 주요 인사, 고물가 장기화 가능성을 경계. 금리인하에 신중함 요구
 - 중국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하회. 디플레이션 압력 여전한 것으로 평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9월 금리인하 기대 증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상승[+1.0%],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양호한 2/4분기 기업실적 전망,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프랑스 정국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0.9%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는 0.2% 상승, 엔화 가치는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0년물 국채입찰에서의 양호한 수요 등으로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5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81.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4.1원, 0.01% 상승). 한국 CDS 약보합

		7/10일	7/9일	전일대비			7/10일	7/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633.9	5,577.0	+1.02%	국채 금리 10y	미국	4.28%	4.30%	-1bp
	유럽	516.42	511.76	+0.91%		독일	2.53%	2.58%	-5bp
	중국	2,939.4	2,959.4	-0.68%		영국	4.13%	4.16%	-3bp
	일본	41,832	41,580	+0.61%	CDS 5y	한국	35bp	35bp	-0bp
	한국	2,868.0	2,867.4	+0.02%		중국	57bp	57bp	-0bp
환율	달러지수	105.00	105.13	-0.13%	위험 지표	EMBI+	-	402	-
	유로화	1.0830	1.0813	+0.16%		VIX	12.85	12.51	+2.72%
	엔화	161.69	161.33	-0.22%		WTI유	82.10	81.41	+0.85%
	위안화	7.2760	7.2726	-0.05%	원자재	구리	460.8	457.8	+0.64%
	원화	1,384.0	1,383.5	-0.04%		금	2,371.3	2,364.1	+0.3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완화에 상당한 자신감. 금리인하는 정치와 무관하게 결정

-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고 언급. 다만 목표인 연율 2%에 도달할 수 있다고 공언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부연
- 또한 금리정책은 경제 지표, 향후 전망, 위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 등 다른 요인들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역사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선거가 예정된 연도에도 동일하다고 부연. 이번 언급으로 시장에서는 9월 금리인하 기대가 증가
- 이에 더해 지금까지 물가안정의 책무에 집중해야만 했지만,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균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 전일에 이어 다시 한 번 노동시장 냉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 또한 금리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 한편 금리인하를 위한 기준이 명확해지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해 거론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 피력. 다만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고무적이며, 지금은 물가안정과 낮은 실업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밟고 있다고 진단. 또한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해서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첨언
- 시장에서는 연준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향후 발표되는 지표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9월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Evercore). 이번 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9월 금리인하의 토대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Bloomberg Economics)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부 차관,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하여 보다 강력한 방어 마련할 필요

- 제이 삼보 국제담당차관은 중국의 과잉생산에서 미국의 산업 및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뿐 아니라 좀 더 혁신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중국의 과잉생산은 국내 수요를 초과할 뿐 아니라 글로벌 수요도 고려하지 않는 수준이며, 이는 국가 지원에 의한 과도한 투자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

■ 미국 5월 도매재고, 전월비 증가. 재고부문은 2/4분기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

- 5월 도매재고는 전월비 0.6% 늘었으며, 이는 예상치(0.6%)에 부합. 이번 결과는 재고투자가 2/4분기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

■ 유로존 6월 임금 상승률, 전월비 높은 수준. ECB의 금리경로 전망은 불변 예상

- 채용정보 사이트 Indeed에 따르면, 유로존의 6월 임금은 전년동월비 3.7% 올라 5월(3.5%) 대비 상승세 강화. 하지만 이는 코로나 팬데믹 직후의 최고치(5.4%) 대비 낮은 수준. 이에 시장에서는 ECB의 향후 금리경로가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

■ 영란은행 주요 인사, 고물가 장기화 가능성을 경계. 금리인하에 신중함 요구

-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인하 시기가 여전히 불확실하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 만 위원은 아직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하회. 디플레이션 압력 여전한 것으로 평가

- 6월 소비자물가(CPI)는 전년동월비 0.2% 올라 전월(0.3%) 및 예상치(0.4%) 하회. CPI는 2월 춘제 효과로 0.7% 상승한 이후 둔화세 지속.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며, 이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분석
- 6월 생산자물가(PPI)는 전년동월비 0.8% 떨어져 전월(-1.4%) 대비 하락세 둔화. 이번 하락은 17개월만의 최저 수준이지만 기저효과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

■ 뉴질랜드 중앙은행, 현행 정책금리 동결. 예상보다 빠른 금리인하 가능성 제시

- 현행 정책금리(5.5%)를 동결하고, 제약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참언. 8월에 금리인하가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11월에 단행될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JB Drax Honore)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1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소비자물가, 미국 7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발언, 독일 6월 소비자물가, 중국 6월 신규 대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대형은행의 실적발표 시작, 상업용부동산 부문 손실 등을 주시할 필요 - WSI

(What to Watch When Bank Earnings Season Kicks Off, in Charts)

- 이번 주 JPMorgan, Citigroup 등 주요 대형은행의 2/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 특히, 투자자들은 지난 해 은행파산 사태, 고금리 장기화 등과 더불어 여타의 실적 저해 요인을 주목.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첫째, 국채나 모기지 담보부 증권 매수에 따른 미실현 손실 둔화 여부. 둘째, 상업용부동산 대출의 연체율 및 이자율 상승 지속 여부. 셋째, 예금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 마진 감소 가능성. 이외에 중소은행의 취약한 유동성,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 등도 주목할 사안

■ EU의 對중국 무역제재, 높은 수출 의존도 등으로 제한적일 소지 - Reuters

(EU's China trade weak spots hide in plain sight)

- 무역 갈등 고조 등으로 EU는 중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예정. 그러나 양국의 수출입 의존도가 상당한 것을 고려할 때 EU의 무역제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우려. 특히, EU가 對중국 수출품목에 제재를 강화할 경우 중국 역시 동일한 조치로 보복에 나설 수 있어 주의 요구
- 실제로 EU의 무역제재가 11월에 본격화 되면 중국은 유럽의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물, 명품 소비재 등에 대한 반격 조치를 취할 가능성. 한편, 중국도 EU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점을 보유. 이에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되면 상호 간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인민은행의 국채시장 개입, 장기 측면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소지 - Financial Times

(China's central bank arms itself for rare bond market intervention)

- 인민은행은 국채금리 하락 방어를 위해 장기 채권 차입 및 매각을 통해 시장에 개입. 한편 재정부는 국채의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발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를 선호. 이에 재무부와 인민은행 간 의견이 상충할 가능성
- 아울러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대출 수요 둔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이러한 조치의 장기 효과에 회의적.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디플레이션 여건에서 국채금리 상승이 어렵다고 주장. 또한 과거 국채금리가 상승해도 장기 금리가 기업 및 가계 차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Capital Economics)

■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어려움 가중 유도 - 블룸버그

(US Commercial Property Crash Is Set to Deepen the Pain Elsewhere)

- 각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한 미국 시장에 집중. 이는 투자 대안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 시장은 투자 부족에 직면
- 일례로 사모펀드의 경우 차입비용 증가로 자금조달 여력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특정 시장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 이를 반영하여 투자가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 특히 유럽의 경우 시장 여건에 따라 자산 평가의 정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점이 투자자의 진입을 저해

■ 미국 S&P500 지수 전망, 대형주의 영향력 급증으로 유용성 떨어질 소지 - 블룸버그

(Market Strategists Thankfully Abandon S&P 500 Targets)

■ 미국 지방채 시장, 세수 및 연방정부 지원 감소 등의 도전에 직면 - 블룸버그

(Muni Market Faces Early Credit Problems as Federal Aid Sun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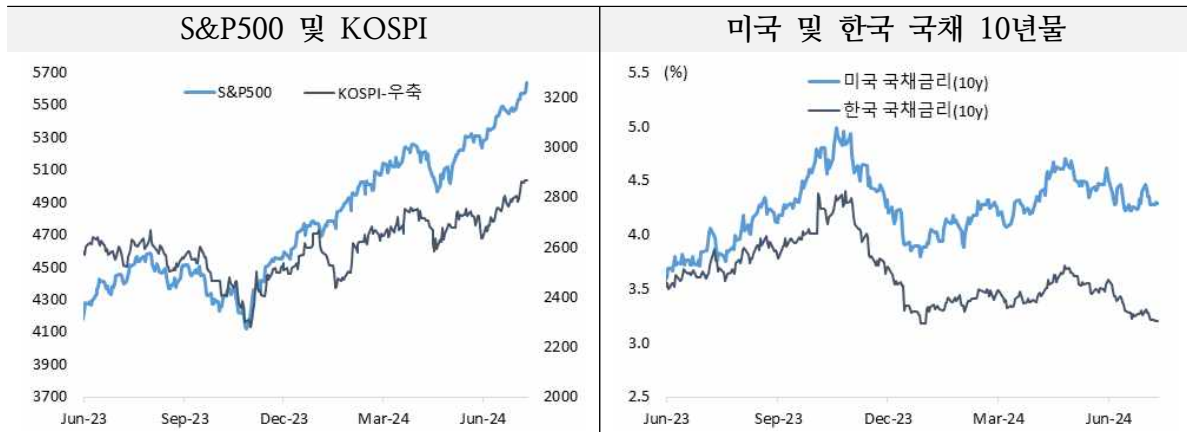
■ 유럽의 경쟁력 강화, 에너지와 혁신 부문에서 효과적 대안 요구 - Financial Times

(Europe needs to sharpen its geopolitical chess game)

■ 신흥국 정크본드 가격 상승, 경제 여건 개선·정치적 불안 완화 등에 기인 - 블룸버그

(Junk Bonds Are All the Rage as Emerging-Market Growth Lures Inves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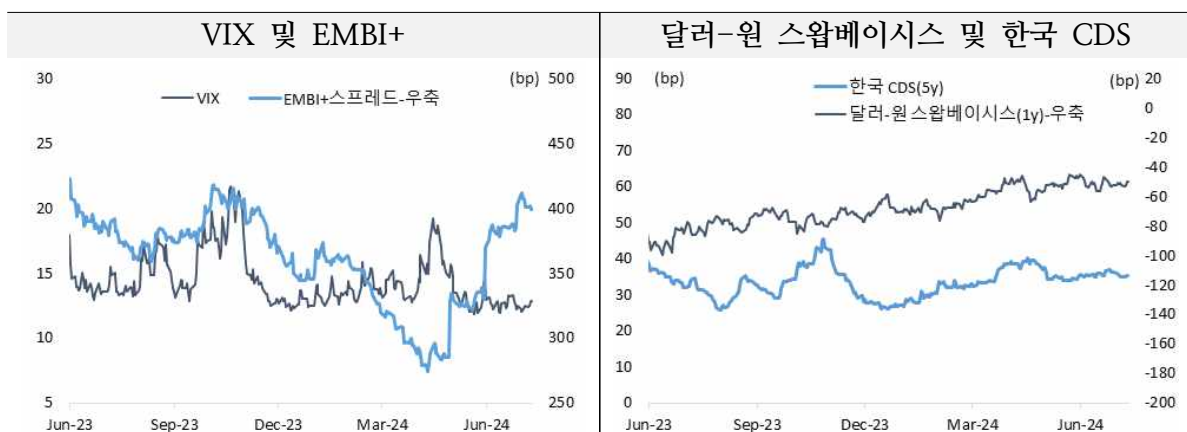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